



큰마루(大亭)에서 영어어가는 꿈·사랑·생각을 키우는 전주대정유치원

꿈과 사랑을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학부모 인권교육



아동 인권에 기반한 양육

분노조절과 따뜻함 주기

보호자는 아이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학습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이의 학습을 저해한다. 보호자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보호자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할 때, 먼저 아이를 안아주는 것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따뜻함 주기의 한 방법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같이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읽는 등 아이에게 무언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따뜻함 제공이다.

유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지만, 보호자나 교사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한다. 아동인권기반 양육이란 바로 아동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고 이해하며 아이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따뜻한 환경을 만들고 지지해주고 정보를 주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거칠게 행동한 때라면, 실수를 지적하고 훈계하기 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해야 한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호자는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며,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행동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안내자이다. 또한, 보호자는 아이의 삶의 동반자이자 차별 없이 아이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삶의 동역자이다. 아이의 동반자이자 동역자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이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의 전과정을 통해 따뜻함과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의 양육이다. 유아는 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잘 배운다. 따뜻함(지지)과 정보(안내)는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의 기본 요소이다.



유아 인권 기반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보호자가 아이를 대할 때 자신의 태도, 행동을 성찰하며,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문항	예	아니요
우리 아이는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안전과 안정감을 느낀다.		
아이의 특성(성별,경제적,문화적 차이,장애,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결정할 때, 아이의 생각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한다.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듣는다.		
아이의 발달적 특성과 진화하는 능력을 믿으며 이해하고 기다린다.		
아이가 부당함을 느낄 때, 이야기 하고 서로 도와 줄 수 있다.		
아이의 감정과 기분을 무시·모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한다.		
아이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 정보를 제공해준다.		
아이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가족, 유치원, 지역사회)을 서로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